

특별기고



서형빈 /보성군 부군수

봄철이 되면 산과 들은 생명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산불의 위험도 커진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쌓여 있는 낙엽과 부산물들은 작은 불씨 하나에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도 한 사람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희생되었고, 오랜 세월 가꾼 울창한 숲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과 자원은 그 규모조차 가능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불법 소각 단속과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산불 진화 헬기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이번 대규모 산불에서도 드러났듯이,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인차해 운영하는 헬기의 노후화로 인해 추가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운영하는 구조를 통합하고,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보성군은 관내 12개 읍면에 74명의 산불진화대원을 배치해 불법 소각 행위 단속과 지역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아간 산불 발생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제도 철저히 유지하고 있으며, 대원들에게 매달 처우개선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여 복지도 힘쓰고 있다.

봄철 산불 예방하자

행정력뿐 아니라 현장 대응 속도와 능력에서도 차별화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 인접지 순찰 강화, 무인 감시 시스템 구축, 산불 발생 시 즉각 출동체계 가동 등 선제적 예방과 신속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를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갖추더라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각심이 없다면 산불은 막을 수 없다.

‘설마 불이 나겠어?’ 하는 순간의 방심, 논·밭두렁 태우기와 생활 쓰레기 소각 같은 부주의한 행동이 여전히 산불의 주된 원인이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5455건 가운데 약 71%가 불법

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이 수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무거운 경고이다.

‘영농 부산물 소각은 관행이 아니라 범죄’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난날들은 단지 운이 따랐던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행운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한 착각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모든 군민이 다음의 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산림 인접지 및 논·밭두렁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산림 인접 공사장에는 소화기 비치 및 철

제한 안전 관리, △등산 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자제 및 입산통제 구역 준수, △주택 및 공공장소 내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 금지 등이

다. 보성군의 푸른 숲은 오랜 세월 동안 군민의 손으로 일궈 낸 자부심이다.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이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산불 예방 행동 수칙을 생활화하여 소중한 산림과 자원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모든 군민과 함께, 더 촘촘하게 지키고, 더 강하게 대응하며,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진 월남사 소장 고려시대 불경, 전남도 유형유산 지정

고려 중기 불교문화 이해 중요 사료…월남사지 일대 문화관광 기틀 마련

강진군은 성전면 월남사가 소장하고 있는 ‘근본설일체유무비나야약사 권 제16’이 지난 24일자로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근본설일체유무비나야약사 권 제16은 고려 중기인 12~13세기 당시 지방관이었던 김강정이 발원해 백지에 직접 필사한 불교 경전이다. 보현사 주지 환원이 이를 교정했다는 사실이 권말에 기록돼 있다.

해당 불경은 초조대장경을 저본으

로 필사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매우 희귀한 백지묵서본이며, 보관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강진군은 이번 문화유산 지정을 계기로 월남사지 주변 관광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월남사 건물지 중창을 비롯해 도량의 완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월남사 일대를 생태관광과 문화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관광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문화유산 지정은 강진의 역사적 위상을 알리고



근본설일체유무비나야약사 권 제16 모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관광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경선 기자

무안문화원 ‘문화학교’ 개강

오는 30일까지 수강생 모집

무안문화원에서 주관하는 2025년 ‘문화학교’가 오는 5월 7일 개강을 앞두고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문화학교’는 무안 지역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속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1학기가 진행되며, 총 5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강좌는 주 1회씩 총 12회차로 운영되며, 무안문화원 교육실 및 무용실에서 진행된다.

무안문화원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번 상반기 문화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5개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월요일엔 ▲도자기 만들기(공예), 화요일엔 ▲음악활동 놀이(음악), 수요일엔 ▲오카리나 합주 중급반(오카리나), 목요일엔 ▲즐거움 미술 놀이(미술), 금요일엔 ▲춤과 몸을 연결하는 마음 치유(예술치유)로 구성되어 있다.

수강 신청은 4월 30일까지 방문(무안군복합문화센터 3층, 또는 전화 (061-452-8648), 이메일 (mumun8648@kccf.or.kr)을 통해 가능하다.

모든 강좌는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무안=김상문 기자

순천, 레지던시 작가 기증작품 전시

‘순천에 살다, 순천에 남기다’…내달 24일까지

순천시는 28일부터 5월 24일까지 문화의거리 내 서문안내소에서 ‘레지던시 작가 기증작품 전 : 순천에 살다, 순천에 남기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장안창작마당 레지던시’에 입주해 창작 활동을 펼친 권군, 김성남, 윤보원, 윤세열, 윤운상, 이시영, 이지연, 임산하, 박소현, 성지현, 안소현 등 11명의 작가가 순천시에 기증한 작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다.

전시에는 우장 상인의 일상을 담은 임산하 작가의 ‘시장2’, 순천의 빛을 표현한 권군 작가의 ‘깃든 광휘

No. 3’, 향교의 은행나무를 점묘법으로 담아낸 윤세열 작가의 ‘채집된’ 등 순천이라는 공간에서 작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낸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예술가들이 순천에서 경험하고 표현한 일상의 풍경과 감성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장안창작마당 입주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일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조준익 기자

나주시립국악단 ‘천년의 樂 나주풍류열전’

내달 31일까지 나주목 향청서 국악 한마당

나주시는 나주시립국악단이 5월 31일까지 토요상설공연 ‘천년의 樂 나주풍류열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나주목 향청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통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열린 무대로 시민은 물론 봄철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특별한 문화 향유의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립국악단의 토요상설공연은 2016년 첫 막을 올린 이래 매년 수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이끌며 나주를 대표하는 전통예술 행사로 자리잡았다.

특히 유서 깊은 나주 읍성과 고즈넉한 향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공연은 전통과 역사의 공간이 예술로 살아나는 순간을 관객에게 보여준

다.

올해는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문 국악 공연으로 한층 더 다채롭다. 태평성대, 新사물놀이, 국악관현악, 화선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깊이 있는 전통 국악의 진수를 느끼는 동시에 퓨전 국악의 신선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시립국악단의 특색 있는 토요상설공연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나주 읍성의 공간성과 어우러진 공연이 관람객들에게 나주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희망 새언론 새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지향하는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 의견 • TEL : (062) 363- 8800
-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mamaeil@naver.com

지국안내

총 장.....223-4123
무 등.....224-4188
등 부.....234-4235
화 등.....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생 촌.....371-93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능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문.....525-8994
두 암.....266-1920
청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9193-6322
담 양...010-9067-4076
곡 성...010-5602-1785
구 레...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2028-4800
강 진...010-3608-0472
장 성...010-3610-7824

합 평...010-3616-4282
영 암...010-4604-3742
무 안...010-2050-0136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4644-8383